

백남준의 <머리를 위한 선>

1962

백남준은 귀로 들리는 소리뿐만 아니라,
눈으로 보이고 몸으로 느껴지는 소리를
표현하려고 했습니다.

이것을 액션 뮤직이라고 합니다.



백남준의 친구들인 플럭서스 예술가들은
작곡도 하고 연주도 하였습니다.
플럭서스 예술가들이 만들어 놓은 스코어(악보 혹은 지시문)를
친구들과 함께 연주해 봅시다.

x_sound

존 케이지와 백남준 이후

2012.3.9-7.1

어린이 활동지

학년 반

이름

존 케이지(1912-1992)는 미국의 현대음악 작곡가로 작곡 외에도
판화제작, 드로잉, 글쓰기, 버섯연구 등 다양한 활동을 하며 현대예술에
많은 영향을 미친 중요한 예술가입니다.

작곡가였던 존 케이지를 가장 유명하게 만든 곡은 <4분 33초>라는 곡으로
4분 33초 동안 연주자가 아무 것도 연주하지 않는 것입니다.

공연장에서 연주자가 아무 것도 연주하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다면, 어떤 소리가 들릴까요?

그 소리를 적어봅시다.

존 케이지의 <장치된 피아노> 1938년

좁은 무대 때문에 다양한 악기를 놓을 수 없어서
피아노 한 대만으로 다양한 소리를 내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장치된 피아노>에서 나는 소리를 들어봅시다.
어떤 악기의 소리처럼 들리나요?



백남준의 <총체 피아노> 1963년

건반을 누르면 라디오에서 소리가 나고
전구에 불이 들어오는 등 여러 가지 장치를 해놓은 피아노입니다.

<총체 피아노>를 관찰해보고 발견한 사물을
피아노와 함께 그려봅시다.